



像高八〇 頭高二七 肩幅三四 膝幅六三 胸幅二〇 蓮座幅八〇 頭光幅四五 身光幅七〇、板石高一一六 廣幅一〇〇이다.

끝으로 本調査에 있어 三伏의 무더위에 案内와 많은 便宜를 주신 忠北道文化課의 李相弼氏와 鎭川郡教育課의 鄭寅和氏께 感謝를 드린다.

## 醴泉 下里의 石塔 二基

崔 成 鳳

醴泉邑에서 上里行 卍—스르 一六km 下里面所在地에서 下車、徒歩로 東便 溪谷을 一km가량 오르면 塔洞에 이른다.

이 洞내 건너 논과 언덕에 新羅末 乃至 高麗初期로 推測되는 石塔 二基가 있다. 其一은 現存三層으로 언덕 정자나무 雙樹사이 에 끼이듯이安置되어 있다. 原位置는 約十m 위쪽이었으며 日帝末 이 곳에 移轉한 것이라 한다. 全高二·八m、下層屋蓋石幅一m、上層屋蓋石幅七三·五cm 造成樣式이 聞慶觀音里의 石塔을 彷彿케 한다.

그 곳 殷豐國民學校 教師 趙宏濟氏의 말에 依하면 日帝末 이 塔을 移轉

間地에는 아무런 彫飾이 없다. 彫刻이 流麗치는 못하나 均整하며 端雅한 佛像이다. 相好라든가 蓮花座의 伏蓮 및 各部의 手法으로 보아 年代는 麗代로 推定되며 前述한 石塔과 同代作으로 생각된다. 實測值(cm)는

再建할時 塔속에서 「曲玉」이 二十四個

나 發見되었다고 한다. 그를 집에 두면

害를 입는다고 하여 隣近 밭에 버리었다

고 하는데 이것을 안 當時 下里駐在所 巡査部長(日人)이 몇

개를 가져갔다 하며 나 머지도 마저 찾아 달라고 洞里사람들에게 金品까지 주어

찾았으나 영 찾지 못하였다고 한다. (作業當時의 老人들이 아직 그 동네에 많이 살아있음)

其二는 其一보다 年代가 上廻하는 듯 하며 風化의 度가 甚하다. 規模는 若干 작은 느낌이나 其一보다 優秀하다고 생각된다. 이 塔의 近處는 넓은 논으로 되어 있고 瓦片의 모습이 無數히 散在하여 있어 古寺址였음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.

생각하건대 醴泉邑에서 上·下里의 골을 들면서 大乘·龍門의 古刹에 이어 이 곳 下里의 古寺址 위로 올라가서 上里 鳴鳳의 古寺址 등이 있는데 「曲玉」이 나왔다 함은 注目할 만하다.

## 一然禪師 浮屠의 調査

黃 壽 永

慶北 軍威郡 古老面 華水洞 麟角寺는 一然禪師의 住刹로서 그의 塔碑가 있어 有名하다. 이 古碑는 現在 下端部만이 남아 있는 바 王羲之의 集字로서 人口에 膾炙되지 오래다.

